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사용에 대한 연구¹⁾

김 용 미* · 김 현 옥**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 왕신여자고등학교**

A Study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in Dat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im, Yongmi* · Kim, Hyon-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Wang-Shin Girls' High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dating violenc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Out of 1205 high school students, 90.6%(n=1092) was included for the final analysis.

120 students(11.9%)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with a dating partner at least once or more.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s of violence were pushing and grabbing. Both of aggressors and victims interpreted the violence as an expression of love and affection. Coping behavior of victims were quite passive, while aggressors tried to apologize and to make-up. Most of victims were angry about violence, while aggressors felt sorry for their behavior. 72.5%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relationship remained unchanged or got better after the violence, while 26.7% answered their relationship was terminated or got worse.

157 respondents(14.4%)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psychological violence at least once or more. Shouting and insulting language or behavior were most frequently used. Coping behavior of victims was mostly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were made in regard to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for dating aggression.

1) 이 논문은 2000년 원광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인간발달의 단계상 매우 특별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정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린다.

청소년이 이 시기에 겪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동성 친구와의 우정으로부터 이성과의 우정과 낭만적 애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정옥분, 1998). 청소년기에는 이성교제를 통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며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성교제에는 오락과 즐거움, 배우자 선택의 기능과 더불어 사회화, 친밀감과 자아육구 충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김양희, 1992).

최근 일련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생들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에는 이성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성교제에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제 폭력(dating violence)이다. 혼전 단계의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것이 훗날 부부 사이의 가정 폭력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김용미, 1999; 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Makepeace, 1981, 1983; Riggs, O'Leary, & Breslin, 1990). 즉 혼전 단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로 발전될 경우, 폭력적 상호작용의 습관이 굳어져서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용미, 1996a).

혼전 폭력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교제관계를 지속하거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한 이성관계의 연속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성교제를 처음

시작하는 중고생들에게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전 폭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1981년에 발표된 Makepeace의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연구되기 시작했다(김예정, 1993; 김예정·김득성, 1999; 김용미, 1996, 1999; 이영숙, 1998). 국내 연구는 주로 이성교제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청소년 가운데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제 중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중학생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고교생에 비해 이성교제의 빈도나 교제 폭력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차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고교생을 표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고교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폭력에 대한 태도와 성장기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고교생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은 어떠한가?
3. 고교생의 심리적 폭력의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발달

청소년기는 11.2세에서 21.2세에 이르는 시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청소년기 발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체적 발달이다. 신체의 외형적 발달은 물론 내면적 발달이나 운동기능, 생식 기능도 급격한 발달을 보인다. 특히 성 기관과 2차 성징이 현저하게 발달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역할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나 작업능력에도 현저한 변화와 성차가 나타난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로서, 일부 아동의 특징이 남아있고 일부 성인을 닮아가는 인생

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박기하, 1988).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차중환, 1989). 첫째, 감각적인 사고와 외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나 행동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기에는 청소년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다. 사춘기에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발달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한다. 또한 소외감, 고독감과 참가의식이 공존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성의식이 크게 발달하여 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적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박성정, 1996).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을 벗어나 이웃과 사회, 이념과 가치관이 통하는 동료와 수평적 관계를 맺고 동료애를 발휘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자아의식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부모나 어른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해져 이를 '제2 반항기'라 부른다. 이 시기에는 동년배 집단과 어울리고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집단 소속의식이 강한 시기이다(이문희, 1993).

2. 이성교제

청소년기에는 성숙해감에 따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에 맞는 이성친구가 있다면 자기발전과 인격적 성숙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애자, 1990). 이성 교제에는 오락적 기능, 자기 이해의 증진과 인격형성 도모, 사회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기술의 숙련, 이성관계를 통한 친밀감 형성, 이성에 대한 탐구와 이해증진의 기능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성교제는 배우자 선택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성교제의 진정한 의의는 인간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결함이며, 청소년기에 시도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3. 교제폭력

이성교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폭력(dating violence)은 미혼남녀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심리적, 성적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이다(O'Keefe, 1997;

Stets & Henderson, 1991).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은 상대방에게 의도적 혹은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 언어적 공격과 상대방의 물건 부수기, 때리려고 위협하기 등 비언어적 공격이 있다. 성적 폭력(sexual violence)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서 심리적, 언어적 위협이나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성교를 강요하거나 성교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Straus, Hamby, McCoy, & Sugarman, 1996).

교제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개인적 특성, 가족배경, 인간관계변수,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 특성으로서, 학교 폭력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교제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로부터 폭력적 반응을 유발시켜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Riggs, O'Leary & Breslin, 1990). 가족 배경으로는 부모간 폭력 목격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부모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한 아동은 폭력 행동은 물론 감정의 분출, 폭력상황, 폭력의 결과까지 관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수용, 모방하게 되어 성장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다. 인간관계 변수에는 교제관계 갈등, 교제관계 만족, 교제관계수준 및 교제기간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특성상 교제기간이 길수록, 상대와 정서적 유대가 많을수록 폭력이 많이 발생하였다(Stets & Pirog-Good, 1987).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폭력사용 비율에 있어서 성 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Laner & Thompson, 1982), 반면 남성의 또는 여성의 폭력사용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Henderson, 1991; Stes et al., 1988). 연령별, 사회계층별 폭력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다수 있으나, 반면 나이가 어린 사람, 저소득층이 더 폭력적이라는 결과도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1,205명의 인문계 고등학생이었다. 거주 지역별 차이점을 비교하고, 연구 결과를 전국 고교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전국에서 표집했다. 이들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남녀 고교생 400명씩을 포함시켰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092부(90.6%)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 시기와 방법

이 연구는 2000년 6월중 예비조사(n=50)를 거친 뒤 설문지를 보완하여, 7월중 약 2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대도시 6개 고교, 중소도시 6개 고교, 농어촌 지역 8개 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의뢰하였다. 설문지는 즉석에서 작성하여 곧 바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나누어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 성장지역, 부모님의 직업, 학력, 가족의 수입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측정했다. 둘째 부분은 폭력에 대한 태도와 교제 폭력 경험에 대한 것이다. 교제 단계 및 배우자간 폭력에 대한 태도(6문항), 성장기 및 학교 폭력경험(7문항), 성장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4문항)은 1-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가지며 폭력 경험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세번째 부분은 이성교제 상대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한 적이 있는지, 경험의 유형별 빈도, 인지된 의미, 행동 및 감정적 대응, 교제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의 측정은 Conflict Tactics ScaleⅡ(Straus, Hamby, McCoy, & Sugarman, 1996, 이하 CTSⅡ)를 이용했다. CTSⅡ의 5개 하위척도 가운데 2개 하위 척도를 사용했다.

4. 자료분석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test, ANOVA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2. 신체적 폭력의 경험

CTSⅡ에 포함된 12가지 종류의 신체적 폭력 가운데 단 한가지라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1.9%(120명)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유경험자 120명의 응답을 기초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의 차이 비교, 폭력의 유형과 빈도, 인지된 의미, 행동 및 감정적 대응, 교제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

1) 인구사회학적 특징별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징별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 비교가 <표 2>에 나와있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혼전단계의 교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t=-2.59, p<.001$). 그러나 학교 생활에서 폭력경험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t=18.25, p<.001$).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회경제계층별(SES) 차이를 살펴보면, SES가 낮을수록 성장시 부모 사이에 폭력이 오가는 것을 목격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부부폭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 출신 청소년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성장과정에서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지별 차이를 보면 대도시 출신 학생들이 중소도시 출신보다 교제폭력과 부부폭력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더욱 많은 폭력에 시달리며 자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 사회에서 더 많은 폭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¹⁾

(n=1,092)

구분		집 단	n	%	구 분	집 단	n	%		
지 역		대도시	352	32.2	부 모 직 업	무직	36	3.4		
		중소도시	364	33.3		노동	45	4.3		
		농어촌	376	34.4		농업	184	17.4		
성 별		남자	496	45.6		부	상업	207	19.6	
		여자	592	54.4			회사원	189	17.9	
학 년		고1년	355	33.0		공무원	교사	108	10.2	
		고2년	344	31.9			교사	37	3.4	
		고3년	378	35.1			전문직	69	6.5	
부 모 연 령	부	40세 미만	43	3.9		기타	기타	186	17.3	
		41세-50세	807	73.9			모	무직(주부포함)	461	43.4
		51세-60세	155	14.2				노동	44	4.1
		61세 이상	7	0.6				농업	144	13.5
	모	40세 미만	227	20.8	상업	180		16.9		
		41세-50세	734	67.2	회사원	49	4.6			
		51세-60세	56	5.1	공무원	13	1.2			
		61세 이상	1	0.1	교사	15	1.4			
종 교		기독교	421	39.0	부	국졸	134	12.6		
		천주교	109	10.1		중졸	120	11.3		
		불 교	191	17.7		고졸	514	48.4		
		무 교	344	31.9		대졸	179	16.9		
수 입		100만원	168	15.9	부 모 학 령	대학원이상	100	9.4		
		101만원-200만원	340	32.2		모	국졸	128	12.0	
		201만원-300만원	174	16.5			중졸	271	25.4	
		301만원-400만원	51	4.8			고졸	437	40.9	
		401만원-500만원	24	2.3			대졸	130	12.2	
		501만원 이상	49	4.6			대학원이상	16	1.5	

1) n<1,092인 경우는 무응답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징별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 비교

	교제폭력 수용태도	부부폭력 수용태도	성 장 기 폭력경험	학 교 폭력경험	부모간 폭력 목적 경험	
성 별	남(n=496)	11.16	10.77	10.27	7.11	7.57
	여(n=592)	11.76	10.76	9.47	4.37	7.77
	t	-2.59***	0.05	2.61	18.25***	-0.85
SES	상(n=263)	11.94	11.28	9.94	5.44	7.06
	중(n=282)	11.58	10.58	10.18	5.38	7.62
	하(n=288)	11.41	10.86	9.12	5.72	8.24
	F	1.49	1.82	3.61*	1.35	6.38***
성장지	대도시(n=352)	12.21	11.39	10.53	5.82	7.33
	중소도시(n=376)	11.20	10.44	9.48	5.39	7.48
	농어촌(n=376)	11.08	10.50	9.55	5.67	8.20
	F	10.21***	5.37**	4.85**	2.30	5.35**

력적 자극을 받으며 자라난 결과, 친밀할 인간관계에서 폭력 사용을 더욱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가정에서 부모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대-중소도시 출신보다 농어촌 출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부사이의 폭력이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적 폭력의 유형과 빈도

응답자들이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유형과 빈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폭력의 형태는 떠밀기(가해자 62.5%, 피해자 39.1%), 움켜잡기(가해자 27.5%, 피해자 18.3%),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가해자 24.1%, 피해자 13.3%), 뺨때리기(가해자 18.3%, 피해자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성 교제를 하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폭력의 유형은 극심한 정도의 폭력보다는 가벼운 정도의 밀기나 움켜잡기 잡아 흔들기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의 보고는 복수 응답하게 했을 때 총인원 109명으로서 응답자 1명이 평균 0.9번의 각종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미(1996a)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남자 응답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교제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쪽은 남학생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인지된 의미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인지된 의미가 <표 4>에 나와있다. 가해자로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랑과 애정의 표현(60%, 72

<표 3> 신체적 폭력 사용의 유형과 빈도¹⁾

(n=120)

신체적 폭력의 유형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합 계
	n	%	n	%	n
떠밀기	75	62.5	47	39.1	122
움켜잡기	33	27.5	22	18.3	55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29	24.1	16	13.3	45
다칠 수 있는 물건 던지기	4	3.3	0	0.0	4
뺨때리기	22	18.3	9	7.5	31
벽 쪽으로 세계 밀어 부치기	7	5.8	9	7.5	16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찌르거나 치기	1	0.8	0	0.0	1
발로 심하게 차기	8	6.7	1	0.8	9
두들겨 패기	5	4.2	1	0.8	6
목조르기	5	4.2	4	3.3	9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 입히기	1	0.8	0	0.0	1
칼 사용하기	0	0.0	0	0.0	0
합 계 (총인원)	190		109		299

1)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 4> 신체적 폭력 사용에 대한 인지된 의미¹⁾

(n=120)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n	%	n	%
사랑과 애정의 표현	72	60.0	51	42.5
분노의 표현	13	10.8	8	6.7
슬픔의 표현	13	10.8	9	7.5
증오·미움의 표현	11	9.2	9	7.5
혼란의 표현	10	8.3	9	7.5
두려움의 표현	3	2.5	1	0.1

1)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음

명)이었으며, 분노의 표현(10.8%, 13명), 슬픔의 표현(10.8%, 13명), 증오·미움의 표현(9.2%, 11명) 순으로 답하였다. 피해자들 역시 상대의 행위가 무엇보다 사랑과 애정의 표현(42.5%, 51명)이었으며 분노의 표현, 증오와 미움의 표현, 혼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각각 7.5%(9명)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용미(1996a)의 연구조사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 행위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답하고, 피해자 역시 상대방의 행위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교제 폭력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폭력으로 표현되었다기 보다는 비록 상대를 때렸지만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성립된다. 이것은 가해자만의 변명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 역시 그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이성교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의견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가끔씩 난폭한 행동을 주고 받지만 미움과 증오의 표현이 아닌 사랑과 애정이 보다 저친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동 및 감정적 대응

폭력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동이 <표5-1>에 나타나 있고, 가해자의 대응행동이 <표 5-2>에 나타나 있다.

피해자의 대응 행동으로는 씩 웃었다(25.7%, 26명)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가만히 맞고 서 있었다(11.9%, 12명), 맞대응했다(10.9%, 11명), 울었다(9.9%,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로서 폭력을 경험하고도 씩 웃었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특이한데, 이는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의 사이에서 애정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또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밀거나 움켜잡기와 같은 약한 수준의 폭력행동을 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다고 느끼거나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거나 미안해하며 사과했다(44.4%, 52명), 공격을

<표 5-1> 폭력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동

(n=95)

피해자의 대응행동	n	%
씩 웃었다.	26	25.7
가만히 맞고 서 있었다.	12	11.9
맞서 대응했다.	11	10.9
울었다.	10	9.9
미안해 했다.	9	8.9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8	7.9
토라졌다.	7	6.9
화가 나서 집에 갔다.	6	5.9
화를 냈다.	5	5.0
벽을 치고 물건을 던졌다.	1	1.0

<표 5-2> 폭력의 사용에 대한 가해자의 대응행동

(n=102)

가해자의 대응행동	n	%
용서를 빌거나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52	44.4
공격을 멈추고 말 걸기를 기다렸다.	11	9.4
화가 나서 집에 갔다.	11	9.4
침묵했다.	9	7.7
울었다.	5	4.3
신체적 폭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3	2.6
욕설을 하거나 계속 심하게 행동했다.	3	2.6
한 동안 연락을 끊었다.	3	2.6
달래 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3	2.6
야단치며 화를 냈다.	2	1.7

〈표 10〉 남녀 성별에 따른 신체적¹, 심리적² 폭력 경험 및 가해, 피해 경험의 비교

	남학생			여학생			t
	n	M	SD	n	M	SD	
신체적 폭력 경험	57	2.35	1.88	60	2.45	1.75	-0.29
신체적 가해경험	51	1.76	1.48	52	1.77	1.34	-0.02
신체적 피해경험	31	1.42	.89	33	1.67	1.02	-1.04
심리적 폭력경험	77	2.70	2.39	80	2.65	2.07	.14
심리적 가해경험	73	2.03	1.55	68	2.07	1.43	-0.18
심리적 피해경험	34	1.76	1.46	38	1.87	1.19	-0.33

1. n=117

2. n=157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함(32.4%, 47명), 헤어질 것을 제의함(26.5%, 39명), 문제삼지 않고 넘어감(21.4%,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리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 양보하며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있다.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폭력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간혹 생긴다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성별 차이 비교

이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45.6%, 여학생이 54.4%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폭력 경험과 가해,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표10).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은 전반적인 신체적 폭력 경험, 가해 및 피해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은 또한 전반적인 심리적 폭력 경험, 가해 및 피해경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성장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폭력의 경험이 더 많고 폭력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고교생들이 이성교제 상황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경험에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Keefe(1997)의 연구결과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미(1996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끝으로, 이 표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 둘 다 그리고 남녀집단 둘 다 가해경험이 피해경험보다 훨씬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가지 이유는 교제 상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경험에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라

고 생각하기보다 가해자라고 간주하는 편이 훨씬 사례고요 바람직한 태도로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교제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성관계를 낭만적,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시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제폭력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학교폭력 경험은 남학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과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비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출신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 교제폭력과 부부폭력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더욱 많은 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났다고 보고했다.

둘째, 이성 교제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은 전체 응답자의 11.9%가 직접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유형은 떠밀기, 움켜잡기,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 당기기 등 비교적 가벼운 종류가 많았다.

셋째, 신체적 폭력 발생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것이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폭력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행동은 가볍게 웃거나 가만히 맞고 있었다는 비율이 37.6%였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폭력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화해하려 한 경우가 53.8%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 갈등상황에서 폭력이 사용될 경우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반면 가해자는 경미한 유형의 폭력이라도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비교적 건전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폭력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피해자의 경우 화를 낸 것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미안하게 느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폭력사용 이후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관계가 중단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26.7%에 그쳤다. 반면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거나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72.5%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성 친구 사이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교제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폭력은 전체 응답자의 14.4%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형태는 고함이나 소리 지르기,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는 양보하며 대화로 해결하거나 잊으려고 노력함이 가장 많아서 바람직한 대응행동으로 보인다.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경험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전반적인 경험수준, 가해 및 피해 경험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성교제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지도와 교제 폭력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첫째로, 학교에서 가정교과나 관련교과에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상(像)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현행 중학교 1학년 교과서(두산동아, p.34) 내용 가운데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측면만 강조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이성교제 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족의 형성과

정」(고등가정 p.17, 동아)부분에서 건전한 이성교제,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처행동, 교제 폭력과 미래의 가정 폭력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 폭력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갈등관리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동성친구는 물론 이성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폭력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이를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하며, 필요한 경우 타협과 양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노를 통제하는 훈련을 시킨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대인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의 폭력 발생도 감소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청소년의 교제 폭력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도있게 계속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중학생을 포함해서 연구함으로써 연령 차이로 인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애자. (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 친구에 대한 태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1992). 가족관계학. 수학사.
- 김예정. (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용미. (1996a).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용미. (1996b).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II: 이론검증과 유무경험 집단의 비교. 원광대 교수 논문집, 31-2, 1221-1223.
- 김용미. (1999). 혼전 단계의 폭력 : 1990년대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7(9), 129-140.
- 박기하. (1998). 십대의 성. 범우사.
-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이문희. (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원·이혜수(1998). 중학교 가정 1. 두산동아.
- 이영숙. (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정옥분. (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차종환. (1989).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바움서신사.
- Cate, R. M., Henton, J.M., Koval, J.E., Christopher, F.S., & Lloyd, S.A.(1982). Premarital abuse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Laner, M.R., & Thompson, J. (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ship couples. *Deviant Behavior*, 3, 229-277.
- Makepeace, J.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 Riggs, D.S., O'Leary, K.D., & Breslin, F.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Stet, J.E., & Henderson, D.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9-36.
- Stets, J.E., & Pirog-Good, M.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 Sugarman, D.D.,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II).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